

정례브리핑

2020.6.3(수) 10:30, 여상기 대변인(통일부)

안녕하십니까? 6월 3일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

먼저, 장관관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

장관은 오늘 오전 11시에 파주 남북산림협력센터 준공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할 예정입니다. 이어서 오후 5시에는 통일부 영상회의실에서 데이비드 비즐리 WFP 사무총장과 화상으로 면담을 할 예정입니다. 이 면담은 일정만 공개하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.

내일은 부내에서 업무를 볼 예정입니다.

차관은 외부행사에 참석하는 장관을 대신하여 오늘 오전 10시에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.

내일은 10시 30분에 차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.

준비된 말씀은 여기까지이고요. 기자님들의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.

[질문 · 답변]

※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(***)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.

<질문> 북한의 인민보안성이 사회안전성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 같습

니다. 대외선전매체도 사회안전성으로 언급하고 있고요. 통일부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 말씀 부탁드립니다, 그리고 통일부가 분석하고 있는 사회안전성 명칭 변경의 배경과 그리고 김정호, 기존의 김정호 인민보안상 유입 여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.

<답변> 예, 북한이 사회안전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복귀된 것은 북한 방송매체를 통해서 보았습니다. 다만, 그 수장이 누구인지 또 기능과 역할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

<질문>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시스템 혹시 바꾸시는지 그 여부 좀 알려주십시오.

<답변> 남북 연락사무소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관련해서는 지금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, 이 시스템 업그레이드는 남북 연락사무소와 기존 통일부와의 호환성 그리고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 업그레이드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

<질문> 추가적으로 지금 대면협의... 사무소로 출근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. 그런데 이 시스템을 특별히 바꾸시는 배경이 있으신 건가요?

<답변> 예, 시스템은 연락사무소하고 통일부하고 기존 시스템과 또 개선해갔을 때 운용상의 문제점들이 일부 있어서 호환성을 높이고 또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.

<질문> 오늘 장관께서 WFP 사무총장 화상면담하시는 것은 그때 작년에 지원하지 못했던 북한 대북 쌀 5만 t 지원하기로 한 그 부분도 논의를 하시게 되나요?

<답변> 예, 오늘 오후에 예정된 WFP 사무총장과의 면담은 올 상반기에 예정이 잡혀있었던 것이었고요. 그것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만나지 못해서 화상회의로 이어지고, 진행이 될 거고요. 그리고 면담에서 논의될 내용에 대해서는 상호관심사에 대해서 폭넓게 협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
<질문> 어제 공동논설이 있었잖아요.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 네 번째다, 다섯 번째다 이런 보도들이 있는데 통일부가 몇 번째인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.

<답변> 그 공동사설은 다섯 번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.

<질문> 상당히 비중이 있는 논설 같은데 통일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?

<답변> 그 평가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것에 비해서 북쪽에 의미를 두고 있는 정도로 알고 있고... 두고 있는 것으로 현 단계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

<질문> 그 내용을 보면 '간부들의 부정부패라든가 갑질 같은 것을 엄벌하겠다.'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. 그 내용들을 보면 '북한사회에 굉장히 간부들의 부정부패나 이런 갑질 현상이 만연해있다.' 이렇게 그런 부분을 엿볼 수 있는데, 통일부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.

<답변>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는, 어느 사회나 있을

수 있고요. 또 북한의 부패상, 간부들의 부패상 관련보도에 대해서 통일부가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.

<질문> 그 관련해서 갑질을 얘기하고 있잖아요? 남한에서는 갑질이라는 그 어떤 보도들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가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, 북한에서 갑질은 어떤 식으로 행해지는지 혹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라든가 사례가 있으면 공유해주십시오.

<답변> 예, 제가 북한에서의 갑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알고 있지는 않은데요. 시간을 가지고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
<질문> 지금 그 내용을 보면 또 굉장히 제재나 코로나, 이중고에 겹쳐서 북한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,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요. 또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서 ‘지난 1990년대의 어떤 고난의 행군 시절 같다.’ 또 어떤 다른 전문가는 ‘거기까지는 아니다.’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통일부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

<답변> 북한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코로나19 상황에다가 또 대북 경제를... 대북제재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다만, 상대적으로 현재 북한의 경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소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. 그것은 좀 더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도록, 시간을 갖고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
<질문> 아까 그 연락사무소 추가적으로 그러면 지금 북측과 혹시 북귀 시점, 그러니까 사무소로 가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계신게 있으신가요?

<답변> 현재 개성으로의 복귀 시점에 대해서 북한과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. 논의 시점은 코로나19 상황이 해소가 됐다고, 객관적으로 아니면 상식적으로 해소가 됐다고 보이는 시점에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.

<질문>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. 지난 브리핑 때 남북협력법 있지 않습니까? 그 관련 얘기하실 때 사실과 다르다고 그리고 '고시에 있던 내용을 상향 입법했다.'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 사실과 다르다... 제가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니 사실 고시에서도 허용을 하고 있고 이번에 상향 입법한 내용에도 허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 관련해서 단지 예전에도 허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, 이런 면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, 이런 식으로 이해해도 되는지.

<답변> 예,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. 기존에 없었던 내용을 이번에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고시에 들어있던 내용들을 법의 형태로 상향 입법했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

<끝>